


국내외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가명정보 결합 및 활용

H기관은 가명정보 결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은 ”
Fasoo의  Analytic DiD 를 도입했습니다



Company

H기관은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일반 국민들의 정보 이용 활성화 촉진을 도모해 국가 경제의 혁신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요즘, 각 산업군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제고해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hallenges

2020년 8월 5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결합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의 결합 및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각 기관이나 금융, 의료, 교육업계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는 막연하게 ‘빅데이터 플랫폼’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활용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법적 컴플라이언스 준수나 효율적인 프로세스 구축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H기관은 산업 전반의 원활한 데이터 유통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고, 각 기관 및 기업들이 안전하면서도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Solutions

H기관은 이번 ‘가명정보 결합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서 국내 대다수의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들이 선택한 Fasoo를 사업자로 최종 선정하고, AnalyticDID를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각 산업군에서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 결합, 반출, 비식별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결합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비식별 조치 완료 후 삭제 및 변형된 데이터의 정보를 원본 데이터와 비교하는 분포도도 제공받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전달되고, 보관 및 결합될 수 있도록 중요 정보의 암호화와 사용 이력 관리, 접근 통제 등의 기능도 함께 제공되는데 이 모든 것이 AnalyticDID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Benefits

AnalyticDID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프라이버시 모델 (K익명성, L다양성, T근접성) 뿐만 아니라, ISO 20889에서 정의한 비식별 조치 기법, GDPR이나 HIPAA와 같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Fasoo는 다양한 비식별 케이스에 대한 경험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기 때문에 H기관은 향후 안전하면서도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